

# 고척 찍고, 잠실 돌아 '나홀로 씩씩'

KIA, 키움·LG 상대 원정 6연전

나성범·임기영, 복귀설 '호재'  
양현종, 통산 170승 달성 주목  
20승 선착...선두 굳히기 총력



독주 체제 구축에 들어간 KIA 타이거즈가 원정 6연전에 돌입한다.

올 시즌 개막 이후 KIA는 지난주까지 한 달간 다른 팀과 한 번씩 맞붙어 탐색전을 마쳤다.

상대팀의 기량을 확인한 KIA는 두 번째로 격돌하는 이번주부터 전력을 다시 가다듬어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KIA는 22일부터 서울팀들을 상대로 원정 6연전을 갖는다. 키움과 주중 3연전, LG와 주말 3연전이다.

키움과 LG는 KIA를 상대로 안방에서 승수를 추가해 선두권 추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첫 상대인 키움은 22일 현재 13승10패로 3위에 있다. 1위 KIA (17승7패)와는 35게임차다.

시즌 개막 전까지 최하위권 전력으로 평가받던 키움은 예상을 뒤엎고, 만만치 않은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올 시즌 홈에서 치른 12경기에서 9승을 올려 안방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원한 팀 타선이 강점이다. 10개 구단 중 장타율 2위, OPS(출루율+장타율) 3위, 득점권타율 3위로 각종 공격 지표가 상위권에 있다.

키움의 강타선을 KIA가 얼마나 잘 막느냐에 따라 승패를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KIA는 홈 개막전에서 타선과 마운드의 힘을 앞세워 키움을 기선제압한 바 있다.

장소를 바꾼 이번 3연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KIA는 23일 경기에 선발 투수로 크로우를, 키움은 하영민을 예고했다.

키움과의 3연전에 이어 주말에는 지난해 우승팀 LG와 2주 만에 다시 맞붙는다.



KIA 에이스 양현종이 지난 19일 홈에서 열린 NC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는 지난 9-11일 LG와의 홈 3연전에서 타선과 마운드의 우위를 앞세워 3연승 (7-2, 5-4, 8-4)을 거뒀다.

시즌 첫 맞대결에서 KIA에게 스윙패를 당한 LG는 설욕전을 위해 잔뜩 버리고 있다.

LG는 현재 5위에 있지만, 팀타율 (0.295) 1위, 출루율 1위, 타점과 득점 1위의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다.

다만,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의 원동력이 됐던 불펜은 다소 불안한 상태다.

KIA도 LG의 화력을 봉쇄하기 위해선 선발 투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KIA는 2위 NC와의 승차를 2경기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주 원정 6연전 성적에 따라 KIA 입장에서 선두 자리를 굳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부상으로 빠진 거포 나성범과 불펜 임기영의 복귀 소식도 슬슬 들려오고 있다.

KIA가 주축 선수들이 빠진 와중에도 1위에 있는 만큼, 투타 핵심 선수들의 복귀는 전력을 더욱 극대화할 전망이다. 야구팬들에게도 반가

## 프로야구 팀별 순위 (22일 현재)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KIA	17	7	0	0.708	0
2	NC	15	9	0	0.625	2
3	키움	13	10	0	0.565	3.5
4	SSG	14	11	1	0.560	3.5
5	LG	13	11	2	0.542	4
6	삼성	13	11	1	0.542	4
7	한화	11	13	0	0.458	6
8	두산	11	15	0	0.423	7
9	롯데	7	16	1	0.304	9.5
10	kt	7	18	1	0.280	10.5

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프로야구 개막 한 달 시점에 최상단에 자리한 KIA가 4월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고, 시즌 초반 독주 체제 구축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토종 에이스' 양현종의 통산 170승 달성 여부도 주목할 점이다. 이르면 오는 25일 키움전 승리 시 송진우(210승)에 이어 역대 두 번째 170승 기록을 쓰게 된다.

주흥철 기자



지난 21일 광주진월국제테니스센터 코र्ट에서 열린 ATP 광주오픈 챔피언십 2024 단식 결승에서 부윤차 오케테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로이드 해리스가 시상식 후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 로이드 해리스, 광주오픈 단식 우승

이재문·송민규 조 복식 우승 감사하다. 볼 키즈와 심판, 슈퍼마이저, 관계자 등 이번 대회를 만들어 준 모든 이들에게도 감사하다"며 "결승전에 함께해 준 팬들 덕분에 최고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날 열린 복식 결승에서는 이재문(ATP 복식 랭킹 45위)-송민규(이상 한국산업은행·409위) 조가 지에 쿠이(Jie Cui·중국·588위)-이덕희(세종시청·1200위) 조에 2-1(1-6, 6-1, 10-3) 역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이재문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ATP 복식 랭킹이 45위에서 300위까지 151단계 올랐고, 송민규 역시 409위에서 289위로 120단계 올랐다.

이덕희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1200위에서 652위로 548단계 뛰어올랐다.

이재문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ATP 복식 랭킹이 45위에서 300위까지 151단계 올랐고, 송민규 역시 409위에서 289위로 120단계 올랐다.

이덕희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1200위에서 652위로 548단계 뛰어올랐다.

이재문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ATP 복식 랭킹이 45위에서 300위까지 151단계 올랐고, 송민규 역시 409위에서 289위로 120단계 올랐다.

이덕희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1200위에서 652위로 548단계 뛰어올랐다.

이재문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ATP 복식 랭킹이 45위에서 300위까지 151단계 올랐고, 송민규 역시 409위에서 289위로 120단계 올랐다.



## 고흥군청, 남자 태권도팀 창단

고흥군청이 전남 최초로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했다. (사진)

고흥군청은 22일 고흥팔영체육관에 이바서 전남체육과 전남태권도 발전을 위해 전남 최초이자 전국에서 33번째로 남자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했다.

새롭게 창단된 고흥군청 태권도팀은 김중욱(전 전남태권도협회 감독) 감독과 양재훈(전 광고 감독) 코치를 비롯해 이경학(-87kg), 하선우(-88kg), 오인성(-88kg), 이의현(-83kg), 김근형(-80kg), 이우빈(-54kg), 김다혁(-74kg)으로 팀을 구성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전남 최초로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해 매우 기쁘다"며 "창단을 통해 도내 우수한 선수들이 고흥을 떠나지 않고 운동할 수 있고, 전남체육과 전남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고흥군청 태권도팀 창단으로 전남태권도 종목 우수선수 확보와 연계육성이 강화됐다. 팀 창단에 힘써주시는 공영민 고흥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전남체육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고흥군청 태권도팀을 지원하고,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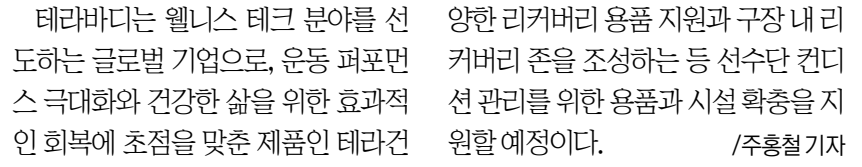
## KIA, 테라바디와 선수단 제품 지원 협약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테라바디와 선수단 제품 지원 협약을 맺었다. (사진)

KIA는 지난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심재학 단장, 최현욱 테라바디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의 컨디션 회복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테라바디는 웰니스 테크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운동 퍼포먼스 극대화와 건강한 삶을 위한 효과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제품인 테라건

으로 익숙한 브랜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테라바디에서는 마사지건 등 다양한 리커버리 용품 지원과 구장 내 리커버리 존을 조성하는 등 선수단 컨디션 관리를 위한 용품과 시설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흥철 기자



넬리 코르다가 22일 열린 LPGA 투어 세브론 챔피언십에 입수 세리머니 후 우승컵에 입맞추고 있다. /AP-연합뉴스

## '호수의 여인' 코르다 LPGA 투어 최다 5연승 타이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LPGA 투어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인 5연승과 함께 메이저 대회 정상에 등극했다.

코르다는 22일 열린 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세브론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연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7타를 기록한 코르다는 2위 마야 스타르크(스웨덴)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LPGA 투어 통산 13승을 달성한 코르다는 메이저 대회에서는 2021년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이후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코르다는 또 올해 1월 드라이브온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3월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과 포드 챔피언십, 이달 초 T모바일 매치플레이어에 이어 최근 출전한 5개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했다.

5개 대회 연속 우승은 LPGA 투어 최다 연승 타이 기록으로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2005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이후 코르다가 통산 세 번째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열린 제2회 페퍼저축은행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 겸 2025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5관왕을 차지한 윤태성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제공>

##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윤태성, 5관왕 명중

페퍼저축은행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 겸 국가대표 1차 선발전...광주시청, 시도 종합우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윤태성이 올해 첫 출전한 제2회 페퍼저축은행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 겸 2025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전 종목 금메달을 따내며 5관왕을 차지했다.

2022년 광주장애인양궁협회 신인 선수로 발굴돼 지난해 2월부터 전남대 산학협력단 소속 장애인스포츠팀 선수로 활동하다 지난달 광주시청에 입단한 윤태성은 지난 20일 인천 계양경기장 아시아대양양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컴파운드 오픈 50m, 50m 종합, 개인전, 더블종목과 같은 팀 정진영과 팀을 이룬 혼성단체전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박희중 기자

특히 '장애인의 날'인 이날 오전으로 인한 악조건 속에서도 투혼을 발휘하며 5관왕을 차지한 윤태성은 태극마크 확보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2025 장애인양궁 국가대표는 1-4차 선발전을 치러 배점 합계로 태극마크를 가린다.

1차 선발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윤태성은 남은 2-4차 선발전에서도 흔들림없는 기량을 유지한다면 내년 안방에서 열리는 광주 세계장애인양궁 선수권대회 출전권을 거머쥐게 된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은 이화숙이 50m 종합과 개인종합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고, 정진영도 50m 1

위, 혼성단체 1위, 개인종합 3위를 차지하며 2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윤태성, 이화숙, 정진영이 금메달 9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합작한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은 시도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안형승 광주시장애인양궁팀 감독은 "윤태성 선수가 아직 신인이라 경험이 부족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대회는 물론 국제대회에서 다양한 실전 경험만 쌓는다면 한국 장애인양궁을 대표하는 스타선수로 발돋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